

열번째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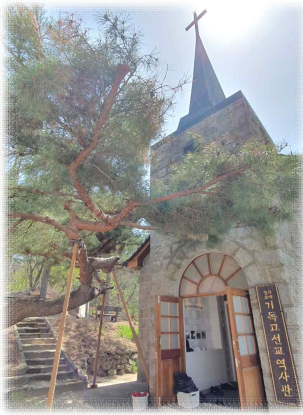
[2019-1 온비아 수련회-강화도 선교 역사 탐방]

작은 선박 위에서 복음이 심겨지다

수도 없이 여러 번 다녀왔던 강화도였지만 항상 갈 때마다 마음 속 어딘가 무거움이 있었던 것은 왜 일까? 이 작은 섬에 수많은 외세로 부터의 침략과 수탈로 남겨진 수난의 역사와 몸부림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어서였을까? 아니면 강화도 어느 산자락에서 붉은 낙조를 보면서 느꼈던 ‘끝’에 대한 생각들을 과거 선사 시대의 사람들도 수많은 고인돌 유적으로 남겼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바로 강 건너에 보이는 황해도 연백에서 한 밤 중에 배를 타고 강화도 교동으로 피난 나오셨다면 이야기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일까?

그러나 이번 온비아 수련회는 그런 강화도에 대한 무거움을 한결 가볍게 해주었다. 우리가 방문한 강화도의 교산교회는 1893년 강화도에 처음 복음이 열매를 맺은 곳이었다. 이곳 주민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인천의 한 주막 주인의 회개와 회심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복음에 감격하여 주막을 청산하고 고향인 강화로 귀향하여 어머니가 세례를 받게 하려 했으나 유독 많았던 침략과 수탈에 마음이 닫혀 있던 지역 주민들은 외국인 선교사의 내방을 절대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반대를 무릅쓰고 어머니를 업고 밤길을 달려 강가의 작은 선박위에서 존스 선교사님의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 이 사건이 강화도의 복음의 씨앗이 되었으며 선교를 반대하던 이웃 지주 경주김씨 문중의 전도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마음이 굳건히 닫혀있던 이 섬이 복음화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세상은 힘과 무력과 재력을 앞세워 타인의 고난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뜻을 관철시키려 한다. 강화도는 그런 역사의 증거이다. 하지만 복음은 가장 작은 한 사람의 회심과 믿음의 열정이 토양이 되어 누룩처럼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번져 나간다. 이런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논리로 이해할 수 없고 미련해 보이지만 그 어느 것보다 강력하고 능력이 있음을 보고 들었던 마음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수련회였다.

[글쓴이 김동준 - 서빙고 월저녁반]

교회 대학부에서 만난 자매와 결혼하여 세 딸과 함께 '사람을 살리는 삶'이라는 비전을 품고 20년 넘게 best friend로 감사하며 살고 있다. 서초B공동체에서 순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예배하고 있다.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리라

8주의 갈라디아서 세미나를 마치고, 강화도로 선교 역사 탐방을 가게 되었다. 전날 반가운 비가 와서 가는 당일엔 공기가 깨끗하고 맑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기대한 대로 화창한 봄 날씨를 뽐내 주는 자연을 구경하며, 맑은 공기를 들이 마시며, 주님의 선물에 감사하며, 좋아하는 지인들과 함께 강화도로 떠났다. 버스운전기사님의 실수로 1시간을 더 지체하게 되었지만 그 동안 세미나로 부족했던 잠을 푹 잘 수 있어서 좋았다.



첫 코스로 강화도의 처음 세워진 '교산교회'를 방문했다. 존스 선교사의 사랑으로 이승환과 그의 어머니의 선상에서의 세례식을 시작으로 그 시대에는 일어날 수 없는 양반과 종의 신분을 뛰어넘어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의 공동체로 살아갔다는 일화가 대단히 인상 깊었다. 성경을 배우고 그대로 삶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던 그 분들의 믿음이 귀해 보였다. 그곳을 시작으로 강화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갔고 복음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감사하면서도 감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그러하지 못한 나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다음으로 간 코스는 점심을 맛있게 먹고 고인돌 공원으로 향했다.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그 무덤을 실제로 보니 굉장히 컸다. 그 곳의 넓은 들판은 고인돌 시대의 자연을 재연한 것처럼 보였는데 사람이 만든 어떤 작품보다도 아름다웠다. 지인들과 오랜만에 웃음소리도 내며 즐겁게 사진도 찍었다.



마지막으로 간 코스는 전쟁기념관과 갑곶돈대였다. 강화의 역사를 보고 들을 수 있었다. 특히 그 곳에서 인상이 남았던 것은 몽골이었다. 우리나라를 수차례 침략하여 약탈을 하고 괴롭혔는데 지금은 몽골에서는 우리를 형제라고 하고 우리는 그곳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으니 참 역사는 아이러니 한 것 같다.

이번 선교 역사탐방을 통해 하나님을 믿었던 분들의 삶과 믿음을 볼 수 있었고 복음이 확장되어온 역사를 볼 수 있어서 마음이 몽클했다.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바로 가까운 이웃에게, 그리고 먼 이웃에게 즉시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의 모습을 보며 내 삶이 부끄럽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나도 언젠가는, 지금도 주님에게 필요한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갈 것을 소망하며 남아있는 세미나들을 충실히 해 내겠다고 다짐해 본다.

[글쓴이 이수진 - 부천 월오전반]



부천 믿음공동체에서 순장과 다락방장을 맡고 있는 남편을 돕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섬기는 주부이다. 저녁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저녁 예배팀에 싱어로 섬기고 있다. 올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성경을 힘써 알자'이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 나에게만 한정적인 하나님의 모습에서 벗어나 크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마음에 BEE를 하게 되었다.

다시 복음 앞에서 회복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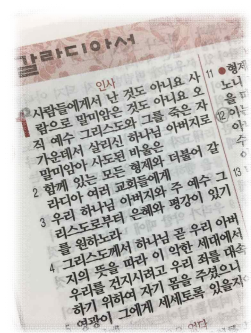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민감해지면서 '왜 나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오래전에 듣고 구원을 받았지만 요즘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 동안 나의 의로 꺾꺾 눌러왔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분노가 폭발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생각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기도 했다. 이러한 나의 선하지 못한 모습이 나를 힘들게 하였고 결국 나는 '하나님 제발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마음속에서 외치게 되었다. 내가 말씀이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는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말씀을 더 알기 위해 온비아 갈라디아서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단순히 수강비가 비싼 만큼 내용도 알차겠지 라는 이해타산적인 생각이 컸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세미나를 끝내고 나니 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세미나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참으로 이것은 그분의 선하신 인도이다. 할렐루야!

오리엔테이션 시 갈라디아서 8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주, 그리스도의 생활 12주를 계속 들어야 하고 사역자들을 배출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무런 정보 없이 가벼운 맘으로 신청한 나를 탓하며, 머리가 복잡해지고 무거워졌다. 그래도 계속 가리라 마음먹었다. 그 이유는 작년에 ‘바울’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다. 감옥에서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인 누가가 자신을 박해한 사람을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하라는 예수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이 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온 나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말씀들을 썼다는 인도자님의 설명을 듣고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었던 주저함들이 한 번에 없어졌다. 오히려 수업시간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어려움 없이 나누는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다.

인도자님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쓴 역사적인 배경과 목적이 갈라디아 교회가 직면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마치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쓴 역사적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바울은 유대주의자에 의해 혼동된 복음을 역사적, 신학적, 실천적 논증으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하였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 나는 자신의 선조 때부터 지켜온 하나님께 받은 모세의 율법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유대주의자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구원이 믿음에 행위의 의를 더한다는 그들의 주장이 내 안에도 있다.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타인에 대한 분노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나의 의로 꺾고 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출처-영화 '바울'
누가와 대화하는 바울



갈라디아서 세미나에 참여하면서 나에게 은혜가 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도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 아들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성품을 닮은 양자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놀랍고 완전한 섭리인지..... 나를 힘들게 하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성령님이 필요했던 것이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는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님이 왜 그렇게 중요했는지 이제 알게 되었다. 이제는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길.....

권위적이지 않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우리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여유있게 답하시는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인도자님, 그리고 학생들을 진심으로 대하시고 출장 때마다 맛있는 간식을 사 오시면서 열심히 섬겨 주신 부인도자님과의 만남은 너무나도 즐거웠다. 두 분은 우리가 낙오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도록 잘 이끌어 주셨다. 우리반 학생들의 성품은 이미 훈련된 것 같다. 수업 전에 와서 미리 준비하고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잘 공감해주며 서로의 마음이 어렵지 않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었다. 모두들 솔직하게 자신의 삶을 나누었고 질문이나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진실하게 말했다. 그래서인지 우리 반 분위기는 정말 짱이었다.



캄캄한 저녁시간 강의실에서 공부하다 환한 대낮에 야외에서 활동하는 온 비아 수련회는 우리의 숨통을 트이게 했다. 수련회 가기 전 이틀 동안 계속 비가 내려 걱정했는데 당일은 깨끗한 햇살과 달콤하고 상쾌한 공기로 가득 했다.



우리는 강화도에 있는 교산교회에 갔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선상에서 한 선비가 여인에게 세례를 주는 동상이다. 아펜젤러 목사의 후임으로 온 존스 목사가 인천 내리교회에서 만난 이승환 성도의 어머니에게 세례를 주는 모습이라고 한다. 동네 사람들은 서양인이 동네에 들어와 세례식을 진행하면 노모의 집을 불사르고 노모가 큰 봉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 바람에 존스 목사는 배를 타고 와서 그 안으로 노모를 오게 하여 달빛을 이용해 예문을 읽어가며 세례를 주었다고 한다. 이것이 유명한 선교 초기의 선상세례이다. 유교문화가 강했던 그 옛날, 조상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도 놀랍고, 전도를 위해 열심인 모습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음의 씨를 미약했으나 백년이 훌쩍 넘은 지금 그 씨앗의 열매는 얼마나 창대한지!

하나님께서서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유대주의자처럼 자신의 의가 강했던 나는 다시 복음 앞에 섰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을 붙잡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다. 그는 부활하셔서 그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어 실망스러운 나의 옛사람을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화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신다고 하셨다. 지금 나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 회복되고 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무궁하길, 매 순간마다 성령님 주관하시길 기도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소감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글쓴이 김정은 - 서빙고 월저녁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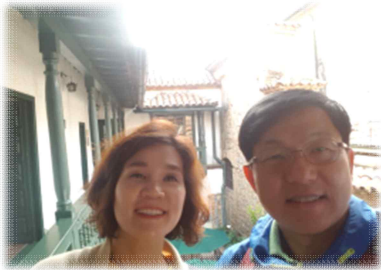


마흔이 넘어 합창단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주일예배를 비롯하여 제자훈련, 선교 아웃리치를 늘 함께 하는 남편은 삶과 신앙의 귀한 동반자이다. 선교사님의 기도편지를 책자로 발간하는 온편지에서 섬기고 있고, Joy N Joy 찬양대, 일하세 사역팀은 건강상의 이유로 잠시 쉬고 있다. 건강한 기업조직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다. 관악금천 공동체에서 순식구들과 함께 예배의 삶을 살고 있다.

BEE의 보석 찾기

10. 정은실 선교사

* 이번 주 보석 찾기 주인공입니다.



2017년 가을, 선교지 콜롬비아에서 잠시 들어와 순모임 참석 중, 순장님께서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이 있다고 소개하셔서 양재 토요 BEE기도모임에 첫 걸음을 하게 되었다. 작은 기도모임이지만 선교지를 향한 뜨거운 기도의 마음에 설렘이 들었다. 처음 간 날, 네팔 아웃리치 나눔 속에서 BEE 세미나를 통한 현지 목회자님들의 열띤 나눔과 열정 등 도전이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곧이어 남편(박재현 선교사)은 현지 목회자 양성을 위해 BEE 과정을 시작하였고, 본부의 배려로 짧은 시간에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다. 틈틈이 BEE 세미나에 참석 하여 성경을 깊이 있게 배우고, 적용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결혼 세미나를 들으며 다시금 세우게 된 성경적 부부관은 우리 부부를 더욱 강건하게 하는 예방 주사를 맞은 것과 같은 큰 도움이 되었다.

BEE는 나에게 ‘친정’인 듯하다. 말씀과 기도로 공급받고, 양재 토요 BEE기도모임 식구들에게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현지에서 SOS를 보낼 수 있는 ‘기도의 울타리’이다.

11. BEE 보석을 찾아요~

* 다음 주 보석 찾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한 마음을 품고 매주 교도소를 방문하여 재소자에게 일대일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매주 토요일 전 세계를 품고 BEE기도모임에 오시는 권사님께서도 오늘도 성경과 일대일 교재를 챙기고 계십니다!

* BEE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BEE 소식

1. 가정의 달 5월! 귀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눔터로 허락하신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2. 6월 16일(일)-21일(금)의 ‘몽골 DPM 졸업식 및 FTS 사역팀’을 모집합니다. 몽골 땅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입니다. 함께 해요!

3. 기도 테이블 소식입니다.

*중국B 기도테이블 식구들이 1월 9일부터 시작한 90통독이 4월 20일에 끝났습니다. 12명 완주!!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음원으로 섬겨준 송숙영 자매님, 통독 완주한 12명에게 선물로 축하해주신 권영석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축하합니다!!

